

東西도자기의 文化交流

- Arita 채색磁器의 世界的 展開에 대하여 -

深 川 正
香 蘭 社

白磁와 채색磁器의 誕生

약 370年前 日本 사가현의 Arita에서 처음으로 견고한 白色의 투광성 磁器가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도 Arita는 日本磁器의 發生地로 알려져 있다. 견고하며 투광성을 띠는 白磁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때 日本의 文化, 美術, 工藝, 生活樣式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Arita 磁器가 日本의 陶制法(ceramic arts)의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Arita 以前의 日本磁器는 단지 “흙으로 만든 물건”일 뿐이었다. 그것은 갈회색으로 무르고 깨어지기 쉬우며 엉성하고 거칠었다. 이런 상황에서 점차 技術이 발달됨에 따라 오늘날의 陶磁器와 흡사한 것으로서 유리질의 유약이 Karatsu의 도자기처럼 얇게 칠해진 것으로 技術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은 그후 日本의 茶道를 發達시켰다. 그러나 이 陶磁器들은 오늘날의 白磁보다 白色度, 純度, 경도에 있어서 훨씬 뒤떨어진 것이었다.

日本의 Arita에서 白磁를 만들기에 적합한 점토가 처음 發見되었고, 李朝時代의 한국에서 온 專門家의 技術的 도움을 받아 良質의 磁器가 1616年 日本에서 開發되었다. 이전에 日本의 白磁는 소위 전문가들이 소메츠키(somersuke) 혹은 染付라고 부르는 얇고 투박하게 채색된 것이었다. 그러나 一般의인 형태는 매우 원시적이었다. 三·四十年後 中國으로부터 瑛료가 도입되었고 그로인해 흰색 磁器는 밝은 적색, 황색, 녹색으로 염색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전설에 依하면 染付를 최초로 確立한 사람은 카키에몽(柿右衛門)이라고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技術은 中國의 陶工들로부터 전수 받은 것이었고, 원료도 계속 중국에서 들여 왔다고 밝혀졌다. Arita의 陶工들은 李朝系와 중국 明나라 末의 技術을 전수하기를 거듭하여 마침내 이를 적절히 조화시켜 日本의 독창적인 技術로 발전시켰고, 매우 뛰어난 도자기를 만들어 냈다. 이때 이 도자기는 “古伊万里(Koimari)”, “色銅島系(Iro-race-shima-kei)”, 또는 “柿右衛門樣式(Kakiemon-style)” 도자기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약 300年前 Edo 시대에 Arita에서 일했던 무명의 도공들과 채색가들의 노력의 結實

이었다. 이러한 뛰어난 채색磁器의 출현은 영주인 사무라이와 중기 Edo 시대의 상인을 놀라게 하였고, 더불어 도자기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이것이 Arita 도자기가 전 日本에 유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大航海時代와 Arita 채색磁器의 大量輸出

日本의 채색磁器가 성숙된지 20~30年後인 1650年代에 다량의 Arita 도자기가 Tokugawa 군부지배시대인 Shou-Meireki 시대 동안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 유럽으로 수출되었다. Arita 도자기가 17C와 18C에 유럽에 소개되었을때 전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大航海時代에는 새로운 해상통로를 통하여 동서양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1492년에 Christopher Columbus가 미국을 發見한 後에 포르투갈인 바스코다가마(Vasco Da Gama)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유럽으로 부터 인도에 도착했다. 1498년에 그가 극동에 이르는 해양로를 발견하는 것은 현대로의 到來와 서로 다른 문명국간의 사상과 상품의 교환을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중의 하나였다. 도자기류, 양념류와 비단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다. 17C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지배권이 넘어 갔지만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계 도자기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Kasei 와 Manrök 황제시대였던 명나라는 유럽에서는 만들 수 없었던 섬세하고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어 냈다. 명시대 말년 혁명으로 인해 중국 도자기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그 대신 네덜란드인이 채색 Arita陶磁器를 구입하기 위해서 나카사키 데지마로 왔다. Edo시대 중반기(1650年~1720年)동안 동인도 회사는 막대한 양의 “古伊万里(Koi-mari)”와 “柿右衛門(Kakiemon)”이 모든 예술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Arita도자기가 약 300년 전에 유럽으로 건너간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전시물들을 유심히 관찰한다면, 그중의 일부는 Arita陶磁器의 眞品을 본따 유럽에서 만들어진 模造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통 이러한 도자기에는 그 도자기를 만든 유럽의 가마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품목이 소위 유럽판 Arita도자기라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Arita도자기의 모조품이 중세 18세기 초엽에 유럽 전역에 산재한 약 30여개의 가마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도자기들은 200年 以上이나 되었을뿐 아니라 수집가들에게도 그의 진가를 인정 받고 있다. 그 당시 유럽에 있는 가마중 가장 명성이 있었던 가마 소재지로는 東獨의 Melsson,

파리 近處의 Dhaut와, 런던의 Bow와 Chelsea 등이었는데 이들은 現存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당시 유럽 가정에서 Arita 도자기가 장식물로서 각광 받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금속 조립품이 결합된 Arita 도자기를 장식물로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Goldsmiths 는 이러한 도자기 바닥에 구멍을 내어 시계나 촛대를 고정시켜 거실의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유럽에 있는 고대의 궁전이나 성들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벽과 천정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이 Arita 도자기와 중국의 도자기로 장식된 자기류 소진열실을 기억할 것이다. 만약 비엔나의 Schönbrunn 이나 서 베를린의 Charlottenburg 등과 같은 외국의 유명한 궁전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잊지 말고 자기류 소진시실 (porcelain cabinet) 을 찾아보고 이를 살펴봄으로써 古伊万里 (Koimari) 가 유럽의 장식예술에서 그 위치를 굳히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東西陶藝의 融合

以前 유럽 藝術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 예술의 장르는 2 가지가 있다. 17세기 중엽 약 200년 동안 유럽에 수출되었던 Arita 도자기와 浮世繪 판화이다. 그 예술적인 眞價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인정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日本의 浮世繪 (Ukiyoe) 가 마네, 모네, 고흐, Lautrec 등의 프랑스 인상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예술가들은 廣重 (Hiroshige) 와 比齋 (Hokusai) 작품의 구성과 색조를 그들의 작품에 적용시켰다. 일본의 浮世繪 (Ukiyoe) 를 수집하는 것은 19세기말 유럽에서 매우 유행하였다. 화가, 예술애호가, 미술상들의 마음의 영혼을 사로잡은 浮世繪 (Ukiyoe), 특히 元緣時代 (Genroku) 의 美人畫가 Arita 도자기에 그려졌다. 그러나 浮世繪 (Ukiyoe) 은 단지 토산품 정도로 네덜란드에서는 여기고 있었다. 1867년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 1차 세계 전시회에서 대량으로 전시되고 나서야 비로서 浮世繪 (Ukiyoe) 의 異國의 情緒풍의 아름다움에 대해 방문했던 많은 유럽인들이 매료되었다.

한편 浮世繪 (Ukiyoe) 그림의 미적 감각은 그 보다 훨씬 전에 뿌리를 내렸다. 그 당시 부터 10年前에 프랑스 磁器繪付師 Frankman 은 日本에서 보내진 도자기와 골동품을 포장한 포장지와 충전재에서 우연히 판화를 발견하였다. 특히 北齋 (Hokusai) 작품에 매료되어 그는 다른 화가들에게 浮世繪 (Ukiyoe) 의 美를 極贊했으며 그 결과 浮世繪 (Ukiyoe) 는 유럽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간접적으로 Arita 도자기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 도자기는 17세기 중엽 이후 유럽에 수출되었다 중국 明나라 도자기는 오랫동안 사용되었지만 明나라에서 청나라로 변화되면서 그 생산이 중지되었다. 한편 Arita 도자기는

유럽에 다량으로 수출되었다.

유럽사람들이 동양의 도자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매우 열중하였던 두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첫째 바로크 양식의 대저택에 陶磁器 展示室을 지니는 習慣은 陶磁器 輸入의 興味를 刺戟했다. 이러한 습관은 1600年代末에 네덜란드에서 시작하여 곧 유럽, 특히 獨逸로 퍼져 나가서 로코코時代에 걸쳐 繼續되었다. 둘째로는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이 17세기 후반기에 上類層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동양의 컵과 꽃(pot)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유럽 도처에서 다수의 가마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Meissen 요업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Sayony의 Electro August, 영국의 Mary II, 베를린의 Charlottenburg 궁의 것들과 같은 수집품들을 관찰하여 본 결과 柿右衛門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당시 柿右衛門(Kakiemon) 磁器가 왜 그토록 선호되었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은 興味로운 일이다. 이러한 수집품 중에서 대부분 17세기 말 부터 약 50年 동안 磁器 製作者로 자리를 지켜온 Arita에서 만들어졌다. 그 당시, Arita에는 중국자기의 모조품과 古伊万里(Koimari)양식의 Arita 세라믹을 製造하는 數百名の 鑄造者들과 채색가들이 있었다. 특히 柿右衛門(Kakiemon)로는 畫法 發展에 重大한 役割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日本의 전통적인 그림을 소재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柿右衛門(Kakiemon) 양식의 獨創性은 陶藝畫의 장을 열었다. Kakinmon 제품은 로코코시대 이전에 유럽에 도입되었다.

도입되자 열광적 애호가들이 생겼으며 Mary II세도 그들중 한명이었다. 로코코 시대 동안 Kakiemon(柿右衛門)의 최고 상품들은 유럽 전역에서, 특히 로코코 문화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높이 평가 되었다. 그것은 柿右衛門(Kakiemon)양식으로 된 繪畫가 그 당시의 섬세한 취향에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로코코 예술은 일반적으로 세련된 리드미컬한 곡선과 좌우의 평형을 파괴시킨 구도로 자유로운 형식을 취한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柿右衛門(Kakiemon) 양식의 구성은, 대나무와 호랑이,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와 같은 전형적인 주제에서 보여지듯이 로코코 예술과 일치한다. 이것들의 작품이 유럽에서 실제로 여러 구상에 의해 가공된 것은 놀랄만 하다. 예를 들어 큰 보울(bowl)과 큰 병(jar)은 금속을 접착하여 장식하거나 크고 작은 sake 병들은 램프와 산들리에에 조화를 이루어 로코코 양식에서 내장 장식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있다. 로코코 예술의 취향을 일상생활에 침투시키는데는 Meissen 도자기의 명성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1725年 Herold와 Meissen시대의 작품을 생각해 보자. 확실히 柿右衛門(Kakiemon) 文樣은 유럽의 식기와 잘 일치하는 것은 확실하나 Meissen 도자기의 채색가들은 로코코 예술의 형태로 柿右衛門(Kakiemon) 양식을 흡수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이다.

일본인들은 대나무와 호랑이, 용, 봉황과 같은 Kakiemon 패턴 (pattern) 이 Meissen 요업의 전통적인 주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보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옛날의 동서양 사이의 문물 교환의 결실이고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日本人들은 古伊万里 (Koimari) 와 柿右衛門 (Kakiemon) 의 작품을 日本人의 양식과 관습에 따라서 유럽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그들의 습관이 있고 그럼으로써 日本은 동일한 작품들이 대개 300년 전에 오늘날과는 아주 다른 양식으로 되살려 사용하고 있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각은 동서양이 공통이라는 것을 새삼 통감하게 된다.

※ Birth of White And Colored Porcelain (白磁と色繪の誕生)

※ The Age of Great Voyage And Mass Import of Arite Colored Porcelain (大航海時代 と有田色繪磁器の大量輸出)

※ Harmony of Porcelain Beauty Between East And West (東西陶藝美の融合)